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사라는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마음과 생활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방금전에 읽었던 여후수아 10장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 점령한 뒤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북부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전쟁은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장 내용이 가나안 땅 전쟁을 종료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차 하계수양회 잘 진행했는데요

5차까지는 제가 목이 안 쉬었어요

그런데 6차때 할아버지 할머니 상담하다가 페이스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처음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여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첫째날 목이 쉬었어요

오늘까지 계속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끝에까지 잘해야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간에 규모를 잘 세워서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가나안땅 남부지역 점령하는 내용과 11장 가나안땅 북부지역 점령하는 순으로 몇 가지 내용들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에요

여호수아 10장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난거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사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10여km 떨어진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처럼 강대한 민족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한거나 마찬가지죠

쫌있으면 자기네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왕이 아모리 다섯 왕을 유혹해서 같이 대적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될 것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계속 가나안땅을 점령해나가는 내용을 기브온 족속도 봤고 아모리 다섯왕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틀렸죠?

기브온 족속은 좀 비굴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아모리 다섯왕은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죠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요

기브온 족속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아모리 다섯왕은 진멸당했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건 참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 발자국 물러서는 걸 선택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두 번 세 번 계속 물러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합니다

교사로 봉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그 상급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신앙생활 할 때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늘 가나안 땅을 싸워서 얻었어요

그냥 얻은게 아니라 싸워서 얻었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통과를 했죠

그리고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열 번째 재앙 어린양이 죽어가는 그것을 봤어요

어린양의 피가 있었고 홍해 바다를 통과했고 40년 광야생활을 통해서 연단 받고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 그렇게 구원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얻을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안 하면 자기들이 죽거나 아니면 맨 처음 차지한 땅 거기서만 안주하고 살아야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지경이 넓혀지느냐 좁혀지느냐 때로는 내가 오히려 거꾸로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늘 싸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될 겁니다

아모리 다섯왕은 마귀의 모형이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다섯왕이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를 삼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아모리 다섯왕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게 돌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에게 물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도태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리 다섯왕이 마귀의 모형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다섯왕을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대충 살려줘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죽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죄가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진멸해야 될 거에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6절 한 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기브온 사람들은 기억하고 아모리 다섯왕이 공격하러 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죠

비록 이 기브온 족속이 악한 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하신 약속은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점일획이 없어지는게 하나님 말씀 지켜지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지는데 문제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저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잘 안 이뤄질까요?

신앙생활 하다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거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지지만 점진적으로 하지만 반드시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에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되어야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사울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7일은 하나님이 7일이 지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대라는거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75세 아들 낳을 거다 그것도 너의 정실부인을 통해서 낳을 거다 약속해줬는데 아브라함이 10년정도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때에 아들을 낳게 하죠

모든 희망도 다 사라졌을 때 기대도 사라지고 100살에 아들낳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이뤄진다라는 믿음을 갖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죠

약속을 믿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될 거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될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주변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죠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부지런히 날라서 엘리야를 살려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짐승까지 동원해서도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가운데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사야 30장 한 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하면 다 무익하고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세상 가운데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몇 등이에요?

당연히 1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일단 내 힘으로 해결해보고 안 되면 주변사람들 동원해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3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움을 하나님께 구해야되지 세상 가운데 도움을 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10장으로 가서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찌어다 하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생소한 땅이에요

훤한 대낮일 때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되면 그 지역이 낯서니

까 아모리 다섯명의 왕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양보고 계속 떠있으라 그 얘길 한 거에요

이거 엄청난 기도죠

태양이 멈춰있으려면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주의 움직임을 한 순간 멈춰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주를 멈추신거에요

우리는 이런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활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다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 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일단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거에요

두 번째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구하니까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태양이 하늘에 멈춰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엄청난 기적 그런걸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됩니다

다시 여호수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입니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대로 두었다가]

이 아모리 다섯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그런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 아모리 다섯왕이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그 왕들 내버려두고 동굴입구에는 큰 돌로 가로막아놓고 거기 내버려두고 나머지 군사를 좇아가서 진멸하는거에요

그리고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왕들을 데리고 나와서 발로 밟고 쳐서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확실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에요

만일 이때 이스라엘이 막게다 굴에 숨은 그 아모리 다섯왕을 죽이려고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그 아모리 다섯왕의 군사들을 다 진멸하기 어려웠을 거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혜롭게 했죠

가둬놓고 나머지 군사들을 다 죽인 뒤에 다시 와서 그 왕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확실하고 이 무엇보다도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일이에요 그리고 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된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아모리 다섯왕을 이스라엘이 끄집어내서 동굴에서 데리고 나와서 발로 밟아놓고 죽입니다

어찌보면 좀 비참하죠 잔인하죠 꼭 그렇게까지 죽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 아모리 다섯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좇아 살면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거에요

전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소금은 소금이되 맛을 잃은 소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되 하나님께 전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거에요

반대로 기브온은 원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죠 죽어야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그 결과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선택해야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왕만 죽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 남부지역을 차례대로 차례대로 공격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우리같으면 우리에게 대적했던 아모리 다섯나라를 다 진멸했어요

그걸로 끝내도 되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기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 남부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도면 됐다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면 됐어 교사로서 이정도하면 됐어 그런

생각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안주하면 안 되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역대상에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에 야베스가 그러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요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보다는 내가 내일 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를 해야될 겁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가나안 남부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남부지역까지 점령됐다라는 내용을 들은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다른데는 다 점령되고 북부지역만 남았어요

그러니가 최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거에요

북부지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점령되면 가나안 땅은 다 점령 되죠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될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 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찌어다]

하나님은 자꾸 세상쪽으로 가려는 마음, 마귀에게 자꾸 유혹되는 마음 그런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더 발악을 하죠

신앙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때도 있을 거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견디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북부지역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게 붙였다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행하여]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다 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을 강퍅하케 해서 그러니까 패역했다라는 거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죄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심판받을 정도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줬다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내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모습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시는거에요

참고 계십니다

빨리 우리보고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정복해야될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되요

그리고 혹시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지 않도록이요

그리고 21절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

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23절 끝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쭉 나눠줍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는요 정복하라, 그리고 소유하라 가나안 땅은 표면적으로 다 정복했어요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점령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라,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유하라

우리가 교회안에 들어와있어도 몸만 들어와있으면 안 되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봉사할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 드려야 될 거에요

그냥 몸만 와서 성경말씀 몇 개, 너 이번주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일주일 생활간증 듣고 머릿돌 검사하고 그걸로 끝이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까지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복한 뒤에 소유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 합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여후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직도 싸워서 쫓아내야될 땅은 많다라는 거에요

15장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정복은 했는데 점령은 했는데 소유하지는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죠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므낫세 지파가 분명히 할당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한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되는데 그 전쟁은 끝까지 해야되요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되요

나에게 뭔가 죄가 있는데 한 두 번 그 죄를 없애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린다거나 그 죄와 타협을 하면 어떤일이 생겨요?

내가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작정하고 그 죄는 내 속에 머물러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가운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 죄를 진멸하고 교회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야될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째는 우리의 원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 7절 집에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될 원수는 육신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거에요

세 번째로 마귀가 원수라고 되어있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내 마음들, 그리고 마귀 우리가 싸워야될 대상입니다

이들과 싸울 때는 끝까지 싸워야된다 라는 거에요

이 여호수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잔인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진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얘기했을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끝까지 진멸해야된다라는거에요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타협하거나 봐줘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냐 그것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 속에서 싸워서 온전히

소유하는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도 중요해요

교사봉사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로서 주신 사명을 내가 교사를 그만둘 때까지 그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하는게 중요할 거에요

여호수아 10장, 11장 내용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전쟁이 그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남겨놓는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정말 이 땅에 뭔가 남겨 놓은 게 없이 마음속에 정말 아쉽다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여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의 봉사를 할 때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 버려야 될 허물 죄가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